

# 발전과 부흥의 길

공화국의 전체 인민이 예극의 승결과 발걸음을 함께 하고있다. 공장과 건설장, 농촌, 과학연구기지 등 온 나라 어디에서나 자력갱생, 자금자족의 생산물, 재부들을 내놓고있다.

함경북도에서는 김책체철원합기업소, 성진체강원합기업소, 청진체강산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이 틀꺾고있으며 자체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 베스들이 거리를 달리고있다. 어량천3호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성장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분이 틀꺾고있으며 자체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 베스들이 거리를 달리고있다.

평양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방직공장, 평북텍지공장, 신도군갈종합농장 등 평안북도의 기계공업, 경공업, 축산업, 농업부문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함경남도, 자강도, 강원도 등 다른 지방들에서도 건설과 산업시설의 현대화, 생산공업들의 개선, 생산물의 질개선에 혁신적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지고있다. 교육, 보건, 문화에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진

한이 일어나고있다.

도와 시, 군을 비롯한 지방들이 자기의 지역적특성에 맞는 발전정책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하고있으며 국가의 전면적, 전반적발전을 안받침하고있다.

지방들에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인민생활이 향상될수록은 나라가 발전하고 흥하는것으로 된다. 학생들이 리용하는 가지각색의 가방은 다 자기 지방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다.

두해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영애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을 때였다.

학생가방생산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여러가지 가방제품을 보신 그이께서는 가방의 질을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이리시면서 각 도의 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가방의 질적수준이 꼭갈게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품인 수량이 많고 제품포장과 상표도안수준이 현저히 개선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공장의 제품들이 도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국각지로 퍼져가고 증상의 식료공장제품 못지 않는 평가를 받고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전국적인 식료공장들사이의 제품경쟁을 활발히 벌여 따라올 수 있도록 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어느 지방이나 튼튼한 인적자원과 물질기술적토대,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다. 곤돌만 하여도 시간간지대, 중간지대, 별방지대, 해안지대 할것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량강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자강도, 평안남도를 비롯하여

어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어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는 나라의 전면적, 전반적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심혈이 깃들여있다.

일곱해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안북도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창성식료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의 현대화를 잘하며 현대화를 한 다음에는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방공업공장의 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원료를 확보하는 문제도 설비들의 현대화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지방공업공장의 원료 문제는 철저히 지방원료에 의거하여 푸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온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나라의 200분의 1을 이루고있는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기반단위이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을 련결시켜주는 지역적거점으로서 군이 발전하면 도가 발전하고 따라서 온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공화국에서는 군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산을 낚 곳에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낚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였기때문에 자력갱생, 자금자족할수 있는 토대와 잠재력이 충분하다.

두해전 6월 서북단에 위치하고있는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북에서 농사를 잘하고 축산, 수산기지를 활성화하여 군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금자족할수 있는 생활민천을 갖춘 군으로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리고 군인민병원을 도시의 큰 병원 못지 않게 현대적으로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한 문제, 소학교, 중학교들을 잘 지어 교육환경과 조건을 일신하여 심사인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군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섬지역 주민들이 물에 사는 사람들 못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웃은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군건설구상에는 도와 시, 군들을 발전시키고 문명한 지방들로 발전시켜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시려는 숭고한 애국애민의 뜻이 어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어느 산골마을에 가보아도 풍요한 가을이 마련되고 어느 공장에 가보아도 증상의 동음이 그 칠줄 모르고 그 어디에 가보나 인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게 울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강국이라고 하시였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온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서 자력갱생, 자금자족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공화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끈질기고 집요하다.

그러나 그 어떤 재재봉쇄압살책동도 자력갱생, 자금자족하며 발전하는 공화국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7월 공화국에서는 군용비행장자리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건설되는 놀라운 진전이 일어났다.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어량천5호발전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득 경성군에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비행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거기에 남새온실농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여러동철하여 말문이 막혀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이미 있던 비행장을 내고 그 자리에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함경북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았는가고 하시였다.

사실 함경북도는 북부해양성기후인것으로 하여 다른 지대보다 남새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도의 전반사업을 책임진 그 일군도 청진시를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속에 묵적이 매달려있었다.

그일이 아무리 중하다한들 군용비행장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비행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 정말 명당자리라고, 비행장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 광활한 국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

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오다가 여기 비행장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일군들에게 이만한 면적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 것은 내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고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대응단을 내리시는 것이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이런 사연깊은 이야기는 인민들이 리용하는 미림승마구락부에도 깃들여있다.

인내 이곳에는 군인들이 군마훈련장으로 오래동안 리용하여왔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마훈련장을 인민을 위해 통째로 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신것이였다.

하여 승마애호가들과 각계층 군로자들이 즐겨 찾는 미림승마구락부가 태어나게 되었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감동시키는 일들이 레사로운 일처럼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대규모관개체계인 황해남도물길건설이 훌륭히 결속되었다.

### 인민사랑의 날은 시래어

몇해전 어느날 고산파수농장(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파수농장의 사과바다, 청춘과원을 유서깊은 철령이 감싸고있으니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문필가들이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제목으로 좋은 글을 써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1년후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썹이 아득한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철령아래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었다고,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서 시상이 절로 떠올랐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창작되어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전변된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며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단풍》호 고기배들의 고향답게 훌륭히 전변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사업소주내에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고넘치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한몫이 그대로 추진자가 되고 그물이 되어 당정책을 걸사관철하고있는 여론전 사들이 있기에 이채여경이라 하여 펼쳐질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수산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변이로 만든 당은 주체당이라고 하시며 평양수산공장에서 주체당생산공정을 완성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려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 《금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음 사람》이라고 말한다. 금방석, 공화국에서는 그 금방석에 앉아 행복을 누려가는 주인이 다름아닌 인민이다. 언젠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인민생활을 최단기간내에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시다가 문득 금방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들은 락원의 행군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린의 세계를 보여주는 금언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행복의 금방석, 문명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기 위하여 끝없이 마음쓰신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8월 레년에 없던 무더위가 계속되던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였다.

궤도전차의 시운전에 이어 무궤도전차의 좌석에 자리를 잡으신 그이께서는 내부환경과 의장품의 질과 문화성이 높아졌는가, 운행시 소음과 진동이 적어졌는가, 모든 기술적특성지표가 정상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세손으로 출

### 매혹과 흠모 - 한없이 숭고한 의리를 지니신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정대해 모시며 절세위인들의 유운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인민을 위한 창조와 전변의 역사를 펼쳐가고계신다. 또한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공을 세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우시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고 계신다. 언젠가 어느 한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석단에는 오래동안 중요직책에서 사업해온 나이많은 일군들도 서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어서부터 주석단에 서있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한 일군에게 의자를 가져다주어 그들이 앉아서 행사에 참가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일군은 순간 주춤거리지 않았을수 없었다.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이 설사 의자를 가져다 주어도 앉지 않겠다고 할수 있는데 그때도 의자를 가져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지난 기간 아버지 수령님과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일군들로써 우리 인민들이 다 잘 알고있다는 일군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잘 돌보아주는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그들이 몹시 힘들어하는데 빨리 의자를 가져다주어야 하겠다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어 지난 시기의 행사판례에는 없었던 가슴 뜨거운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그의 사랑도 뜨거운것이다. 충진술령 조국수호의 성전에서 한목숨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쟁로병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마다 그들을 수도 평양에 불러 전송할을 크게 의는것을 전전화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전쟁로병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긴 감동깊은 연설도 하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열사들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하시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열사들의 묘를 잘 꾸리도록 해주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선배에 경의를 드린다》라는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불멸의 친필도 새겨주시였다. 이런 뜨거운 의리심에 떠받쳐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70년이 가까와오고있지만 조국의 찬도를 지켜싸울 수많은 유명무명의 전사들이 전승의 빛나고 살점이 멀어져나가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생각할수 없는 조력들이었다. 그 고결함을 괴려하셨다. 이처럼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의 품에 온 나라 인민이 안기여 살고있다.

김춘원

